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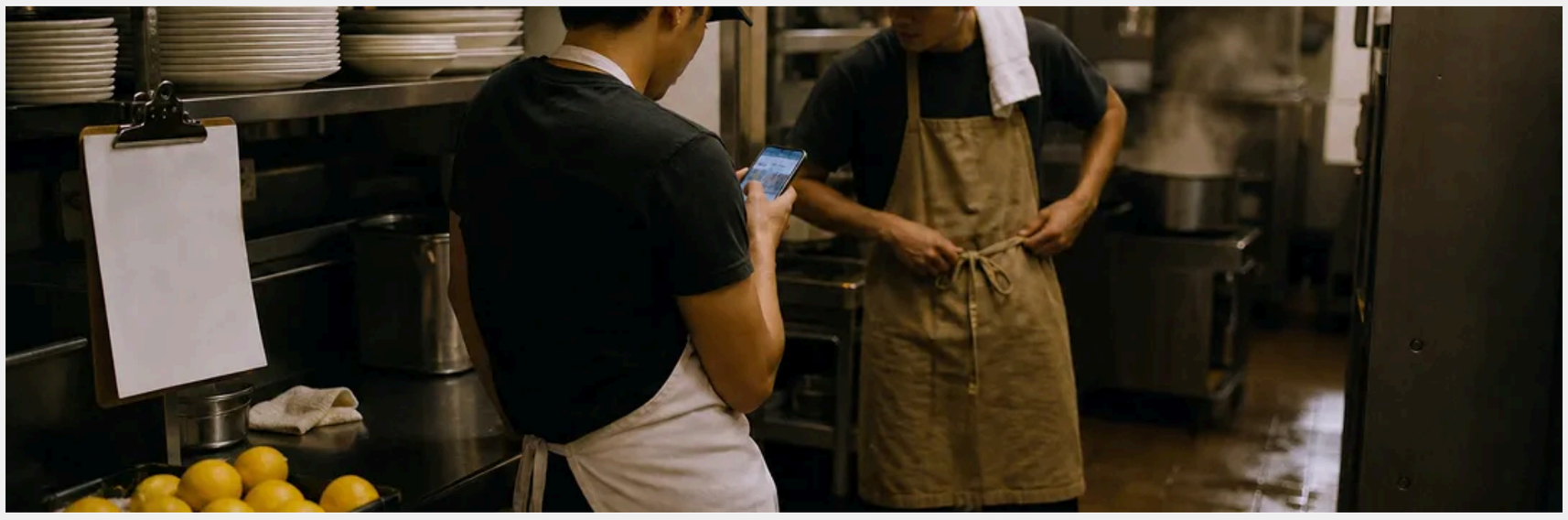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57 호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오늘의 AI

비즈니스

바이츠, 현장 직원 AI 교육 투자 유치

현장 직원에게 90초짜리 AI 교육 영상을 왓츠앱·팀즈로 보내는 바이츠가 피크스팬 캐피털 주도로 4,000만 달러를 유치했다. 회사는 교육 기록을 매출·고객관리 데이터와 이어 성과 공백을 자동으로 메우는 기능을 키운다.



비즈니스 · 바이츠, 현장 직원 AI 교육 투자 유치

책상 없이 일하는 현장 직원에게 AI 교육 영상을 보내는 이스라엘·미국 스타트업 바이츠(Bites)가 10월 29일 4,0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발표했다. 누적 투자액은 5,500만 달러가 됐다. 피크스팬 캐피털이 투자를 이끌었고 기존 투자사인 버텍스 벤처스, 호라이즌 캐피털, 리튼하우스 벤처스, 라이라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피크스팬의 필 더(Phil Dur)와 찰리 라인케마이어(Charlie Reinkemeyer)가 이사회에 합류한다. 바이츠는 이 돈으로 미국 사업을 키우고, 현장 교육을 매출·서비스·운영 성과와 잇는 AI 플랫폼을 더 개발한다고 밝혔다.

바이츠가 겨냥하는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지 않는 노동자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이런 현장 인력은 약 28억 명으로 전 세계 노동력의 약 80%를 차지한다. 강의와 학습관리시스템(LMS) 로그인을 전제로 만든 교육은 이들에게 잘 닿지 않는다. 에란 헤페츠(Eran Heffetz)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식당을 운영하며 배운 것은 비즈니스 성과가 매일 매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지식과 지원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라며 "그 지원을 모든 현장 직원의 손에 쥐여 주려고 바이츠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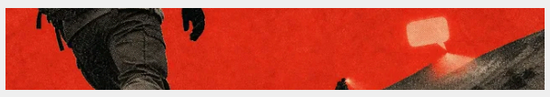
제품은 짧은 영상이다. 바이츠의 AI 스튜디오는 PDF나 표준운영절차(SOP) 문서, 아이디어 한 줄을 몇 분 만에 회사 브랜드를 입힌 교육 영상으로 바꾼다. 한 편은 최대 90초이고 짧은 영상에 질문, 요약, 토론이 붙는다. 영상은 왓츠앱, 문자메시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슬랙, 또는 링크 하나로 전달되며 앱 설치나 로그인이 필요 없다. 영상 하나가 150개 넘는 언어를 지원하고 한 번 눌러 언어를 바꾼다. 고칠 곳이 생기면 AI 편집 에이전트에 바꿀 내용을 말로 설명하면 된다. 직원이 나중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애스크 AI 기능이 회사가 승인한 자료만 써서 자연어로 답한다.



보이시, 지열로 저렴주택 300가구 난방

회사가 내건 성과 수치는 둘이다. 바이츠에 따르면 고객사는 보통 3주 안에 참여율 90%를 넘기고, 기존 고객 매출의 증감을 따지는 순매출유지율은 161%다. 고객은 숙박, 패스트푸드, 소매, 소비재, 제조 업종에 걸쳐 있다. 유니레버, 코카콜라, 쉐이크쉑, 윈 리조트, 베네시안, 컴퍼스 그룹이 제품 출시와 판촉, 서비스 기준, 새 절차를 현장에 내려보낼 때 바이츠를 쓴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건설사 일렉트라의 공사 현장에서는 중국어, 아랍어, 히브리어, 러시아어 등 6개 언어를 쓰는 노동자와 관리자가 바이츠로 교육을 받는다.

헤페츠의 출발점은 텔아비브의 식당과 바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비키 크리스티나, 리틀 이탈리, 브레드 스토리 등을 공동 창업해 운영하며 직원이 떠나고 새로 올 때마다 교육을 반복해야 했다. 바이츠는 2020년 헤페츠와 탈 나글러 알모그(Tal Nagler Almog) 최고운영책임자, 하가이 호로비츠(Hagai Horovitz) 최고정보책임자가 세웠다. 직원은 텔아비브 개발센터와 뉴욕 본사를 합쳐 30명이다. 헤페츠는 "이스라엘이나 브라질, 인도의 판매 직원을 교육하려 할 때 그 직원은 갖고 있지도 않은 노트북을 열고 30분짜리 온라인 교육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이 전환점이었다며 "AI가 큰 촉매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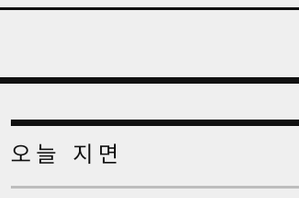
이번 투자의 핵심은 교육과 성과 데이터를 잇는 일이다. 현장 교육은 보통 수료율로 평가받고, 매출은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에, 고객 점수는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에, 이직률은 인사 시스템에 따로 있다. 바이츠는 이미 POS, CRM, 전사적자원관리(ERP), 인적자본관리(HCM)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백만 건의 현장 학습 기록과 연결하고 있고, 그 일부는 지금 가동 중이다. 투자금으로 성과가 떨어진 매장·근무조·직무·개인을 찾고, 그 빈틈을 메울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해당 직원에게 보낸 뒤, 지표가 움직였는지 재는 순환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든 예시는 새 판촉의 추가 판매가 처진 매장에 자사 매장과 유니폼이 나오는 60초 코칭 영상을 보내고, 그 뒤 추가 판매율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헤페츠는 "모든 회사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안다. 그들이 가져 본 적 없는 것은 증거, 그리고 속도"라며 "그때 인재개발은 비용 부서가 아니라 성과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된다"고 말했다. 투자를 이끈 필 더 피크스팬 공동창업자는 현장 직원이 전 세계 노동력의 약 80%인데도 기업들이 사무직용 도구를 이어 붙여 써 왔다며, 실사 과정에서 만난 고객들이 플랫폼이 인력의 요구에 얼마나 잘 맞는지를 한결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츠가 전통적 기업 교육 예산을 훨씬 넘어서는 예산을 쥔 영업·운영 책임자들에게 빠르게 채택되고 있다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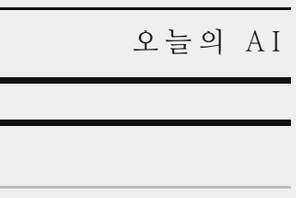
메탈이 확인한 바이츠 발표문에 따르면 투자금은 미국 확장에도 쓰인다. 헤페츠가 뉴욕으로 옮겨 기업 영업과 고객 성공 조직을 꾸리고, 파트너·리셀러 채널을 만들며, 은행과 보험, 외부 인력을 쓰는 조직으로 시장을 넓힌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개발센터도 키워 AI 엔진 개발을 이어 간다. 메탈은 우버가 전 직원 3만 명에게 챗GPT 워크를 도입한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사무직 AI 도입이 사내 전체 배포로 번지는 사이, 바이츠의 투자 유치는 계산대와 주방, 공

오늘 지면

1 비즈니스 바이츠, 현장 직원 AI 교육 투자 유치
2 AI 앤스로픽, 클로드 API 메시지 스레드 공개
3 비즈니스 앤스로픽, 일본 투자자 대상 35억 달러 공모
4 AI 오픈AI, 그리드 프로텍터스 프로그램 발표
5 비즈니스 JP모건 데이비드 켈리,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 발표
6 기후 보이시, 지열로 저렴주택 300가구 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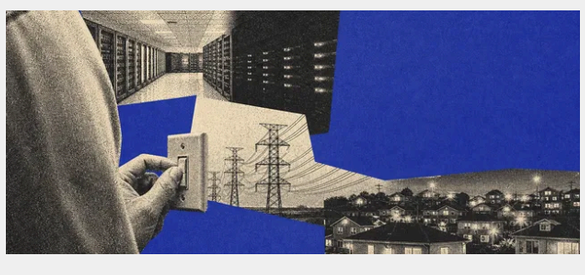
베라헬스, 2,850만달러 시리즈 A 유치



이재명 대통령, AI·반도체 21조 3천억 원 투자

이 지면은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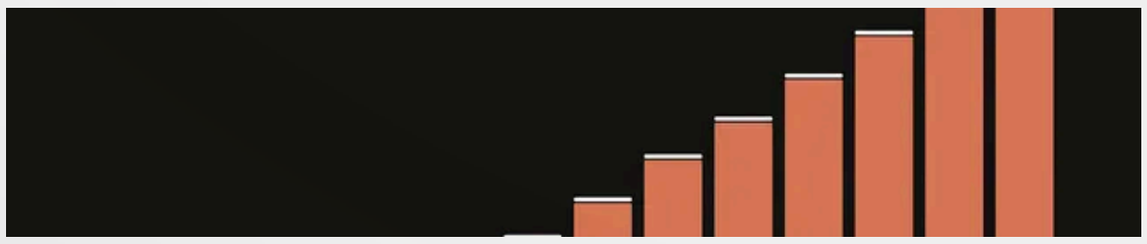
오픈AI, 그리드 프로텍터스 프로그램 발표

오픈AI가 11월 2일 그리드 프로텍터스 프로그램(Grid Protectors Program)을 발표했다. 앞으로 짓는 컴퓨트 캠퍼스가 전력망에 부하가 몰릴 때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전력회사, 규제기관, 정책 당국과 약정을 맺겠다는 전국 단위 계획이다. 출발점은 조지아주다. 회사는 에핑엄 카운티에 계획한 캠퍼스를 시범 사례로 삼고, 조지아 파워와 맺은 계약에 담긴 최대 1,000메가와트(MW)의 유연 수요반응을 다른 지역 캠퍼스의 본보기로 쓰겠

▶ 2면에 계속

AI

앤스로픽, 클로드 API 메시지 스레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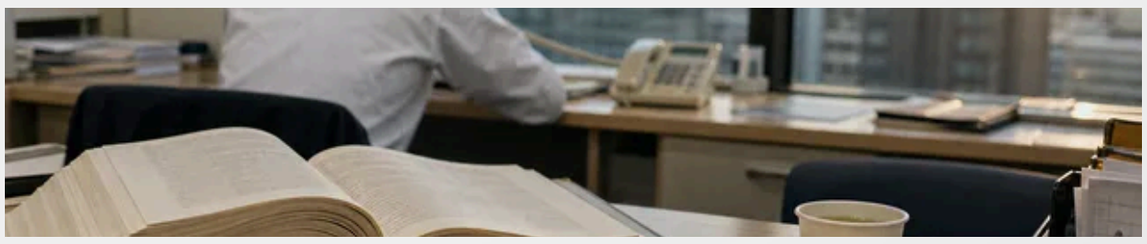
앤스로픽이 11월 2일(현지시간) 클로드 Messages API에 메시지 스레드(message threads) 기능을 공개 베타로 내놓았다. 대화를 서버에 잠시 붙잡아 두고, 둘째 턴부터는 새 메시지와 직전 응답의 ID만 보내게 하는 방식이다. 앤스로픽은 공식 글에서 "메시지 스레드를 쓰면 에이전트가 매 턴 전체 대화 기록을 다시 보낼 필요가 없어 장시간 세션의 지연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회사는 클로드 코드 이용자 대부분에게 이 기능을 기본으로 켠 결과, 50만~100만 토큰 규모 요청에서 첫 토큰까지 걸리는 시간(TTFT)의 중앙값이 약 35%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능이 겨냥한 병목은 긴 에이전트 루프다. 앤스로픽에 따르면 코딩 에이전트는 한 세션에서 수백 번 요청을 보내고, 요

▶ 2면에 계속

비즈니스

앤스로픽, 일본 투자자 대상 35억 달러 공모



앤스로픽이 11월 2일 일본 관동재무국에 미국 기업공개(IPO)의 일본 몫을 다루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냈다. 신고서 표지에 적힌 일본 모집 발행가액 총액 상한은 35억 달러, 엔화로 5,528억 9,500만 엔이다. 회사는 이 금액이 제출 시점의 상한 추정치이며 실제 모집액은 조건결정일에 정해지고 상한과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투자자 대상 공모가 공식 서류로 시작되면서, 일본의 개인과 기관이 미국 나스닥에 오를 앤스로픽 클래스 A 보통주를 상장 전에 직접 청약할 길이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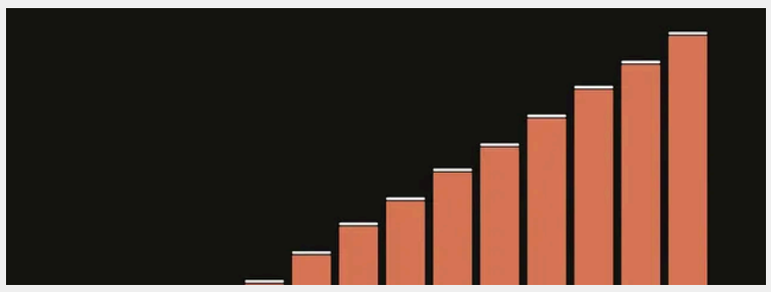
메탈이 확인한 478쪽 분량 신고서에 따르면 일본 청약은 증권사 6곳이 받는다. 미즈호증권, 골드만삭스증권,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모건스탠리MUFG증권, 라쿠텐증권,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앤스로픽, 클로드 API 메시지 스레드 공개



1 앤스로픽은 11월 2일 클로드 Messages API에 메시지 스레드를 공개 베타로 열었다. 첫 요청에 전체 대화를 보내고 이후에는 새 메시지와 직전 응답 ID만 보낸다.

2 클로드 코드 이용자 대부분에게 기본으로 켠 결과 50만~100만 토큰 요청의 첫 토큰까지 시간 중앙값이 약 35% 줄었다고 회사는 밝혔다.

3 스레드는 암호화된 메모리에만 머물고 마지막 요청 뒤 5분에 만료되며, 토큰 사용량·요금·속도 제한은 바뀌지 않는다.

쓰는 법은 매개변수 하나다. 첫 요청에는 지금처럼 전체 대화와 시스템 프롬프트, 도구 정의를 담고 "thread": {"type": "create"}를 붙인다. API는 클로드의 응답까지 포함한 대화를 그 응답 ID 아래에 저장한다. 다음 요청부터는 직전 응답 이후의 메시지만 보내면서 type을 continue로, previousmessageid에 직전 응답 ID를 넣는다. 이때 system과 tools는 빼야 하고, 하나라도 보내면 값이 null이어도 400 오류가 난다. 스레드에 속한 모든 요청에는 message-threads-2026-08-12 베타 헤더가 붙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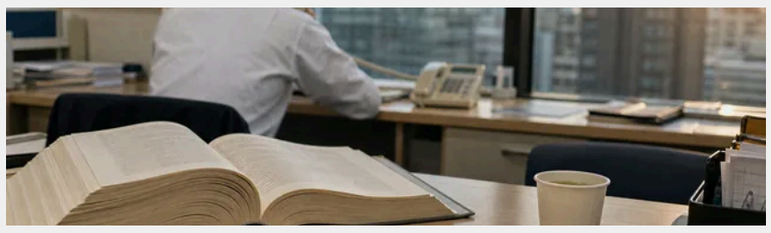
대화는 서버 메모리에만 머문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스레드 내용은 서버가 관리하는 키로 암호화돼 메모리에 보관되고 영구 저장소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스레드는 마지막 요청 뒤 5분이 지나면 만료되고, API는 마지막 사용 뒤 1시간 안에 이를 지운다. 응답이 하나 저장될 때마다 5분이 다시 시작된다. 보관은 최선 노력(best-effort) 방식이라 계속 요청이 404 오류로 돌아오면 전체 대화를 새 생성 요청으로 다시 보내야 한다. 문서는 "애플리케이션이 대화의 기준 원본으로 유지된다"며 모든 메시지의 사본을 직접 보관하라고 못 박았다.

비용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앤스로픽은 "메시지 스레드로 요청 하나하나는 작아지지만 클로드는 매 턴 여전히 전체 대화를 읽으므로 토큰 사용량은 같다"고 밝혔다. 표준 토큰 요금과 기존 속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프롬프트 캐싱도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개발자가 캐시 중단점을 직접 두거나 최상위 cachecontrol을 매 요청에 보내야 하고, 스레드 요청 하나에 둘 수 있는 cachecontrol 중단점은 최대 4개다.

◀ 1면에서 계속

비즈니스

앤스로픽, 일본 투자자 대상 35억 달러 공모



1 앤스로픽은 11월 2일 일본 관동재무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고 일본 모집 상한을 35억 달러(5,528억 9,500만 엔)로 적었다.

2 미즈호증권·골드만삭스증권·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모건스탠리MUFG증권·라쿠텐증권·SBI증권 6곳이 청약을 받고, 조건결정일은 2026년 11월~2027년 4월 사이다.

3 신고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매출은 16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00% 늘었고, 공동창업자 서한은 회사 가치를 부풀리지 말라는 조언을 소개했다.

일정은 넓게 열려 있다. 신고서는 가격을 정하는 조건결정일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 사이의 어느 날로 잡았고, 수요 예측 결과와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2027년 4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고 썼다. 발행가격은 미국 시장 관행에 따라 가조건 상단보다 높거나 하단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 회사는 이 방식이 일본의 일반적인 상장 전 공모와 다르다며 투자자에게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청약 단위는 1주이고 거래는 달러로 이뤄진다. 앤스로픽 이사회는 10월 23일 공모 실시와 각국 서류 제출을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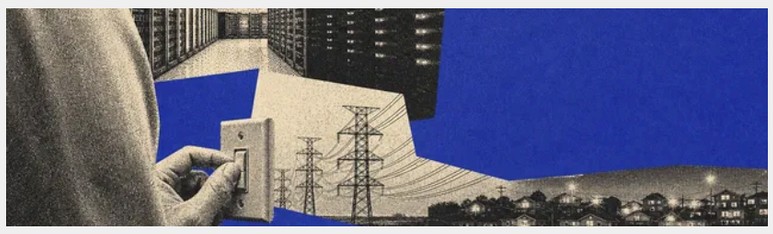
개인 투자자 배정 방식도 신고서에 들어 있다. 미즈호증권 온라인 창구와 라쿠텐증권은 추첨으로 당첨자와 보결 당첨자를 가리고, SBI증권은 청약이 판매 물량을 넘을 때 추첨한다. 당첨자는 조건결정일 일본 시간 오후 0시 59분까지 구매를 사퇴할 수 있다. 일본 거래소 상장 계획은 없다. 일본 모집으로 산 주식은 도쿄 기준 조건결정일 2영업일 뒤 교부되고, 투자자는 청약한 증권사의 외국증권 거래 계좌로 나스닥 상장일부터 사고팔 수 있다.

조달 자금의 쓰임새는 운전자본, 영업비용, 컴퓨트와 인프라를 포함한 설비투자, 고급 인재의 채용과 유지다. 신고서는 자금 일부를 사업·제품·기술의 인수나 투자에 쓸 수 있지만 현재 중요한 인수·투자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권리가 확정된 제한조건부주식(RSU)에 딸린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 데도 일부를 쓴다. 임원과 기존 주주는 조건결정일부터 180일 동안 주식을 처분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해외 인수단은 30일 동안 초과배정 옵션을 쓸 수 있다. 전체 공모 주식 수, 가격 범위, 일본 몫의 주식 수는 모두 「미정」으로 비어 있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그리드 프로텍터스 프로그램 발표



1 오픈AI는 11월 2일 앞으로 짓는 캠퍼스가 전력망에 부하가 몰릴 때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전력회사와 약정을 맺는 그리드 프로텍터스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2 시범 사례인 조지아주 에핑엄 캠퍼스 계약에는 조지아 파워가 최대 1,000MW를 줄일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이는 약 70만 가구의 평균 수요에 해당한다.

3 오픈AI는 캠퍼스 기반시설과 전력 서비스 비용 전액을 내기로 했으며, 조지아 파워는 2029년부터 고객 비용이 해마다 약 9억 5,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그램의 골격은 지역별 협상이다. 오픈AI는 캠퍼스마다 전력회사와 수요를 얼마나, 얼마나 빨리, 얼마 동안 줄일지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고, 추가 약속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한다. 지역 사정과 설비에 따라 현장 발전기나 저장 설비로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고, 배터리와 전력 제어 장치로 수요 변화를 완만하게 만드는 방안도 함께 쓴다. 회사는 캠퍼스의 유연성을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전력회사가 불러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적었다.

조지아 계약의 숫자가 이 프로그램의 기준선이다. 보도에 따르면 에핑엄 캠퍼스는 프로젝트 카멜리아로 불리며, 완공 시 3.2GW의 전력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AI는 조지아 파워와 이 전력을 공급받는 25년 계약을 맺었고, 공급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는 8월 이 계약을 승인했다. 계약에는 수요가 몰릴 때 조지아 파워가 캠퍼스 공급을 최대 1,000MW 줄일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다. 오픈AI는 이 규모가 평균 전력 사용 기준 약 70만 가구의 수요에 해당하며, 워싱턴 D.C.와 보스턴을 합친 가구 수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파워가 데이터센터 고객과 맺은 유연 수요 약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용 분담도 계약에 적혀 있다. 오픈AI는 에핑엄 캠퍼스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전력 서비스 비용 전액을 내기로 했다. 회사는 "가정과 소상공인이 컴퓨트 캠퍼스의 전기 수요를 보조하라는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8,000만 달러 규모의 지역사회 기금도 약속했고, 그중 최대 7,100만 달러가 조지아 학생 교육 지원에 쓰인다. 캠퍼스 착공 목표는 2026년 말이며, 전체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

JP모건 데이비드 켈리,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 발표

데이비드 켈리 JP모건 자산운용 수석 글로벌 전략가가 미국 주택시장의 문제는 집 부족이 아니라 인구 증가 둔화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연 80만 명 인구 증가로는 새 주택이 해마다 32만 호만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1 JP모건 자산운용의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10월 26일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순 공급 과잉 상태라고 밝혔다.

2 그는 이민 감소로 연간 인구 증가가 80만 명에 그쳐 새 주택 수요가 연 32만 호로 줄었다고 계산했다.

3 켈리는 데이터센터 구축이 건설 인력과 자재를 끌어가며 주택 건설 원가를 올리고 있다고 짚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데이비드 켈리(David Kelly) 수석 글로벌 전략가가 10월 26일 주간 보고서 「유령 들린 주택: 주거용 부동산 전망」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 주택시장의 문제가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집을 찾는 사람이 줄어서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켈리는 보고서 첫 문장에서 "주택시장은 유령에 홀려 있다"고 썼다. 그가 꼽은 유령은 셋이다. 10년 넘게 이어진 지나치게 느슨한 통화정책, 주택 건설 비용을 올리면서 인구 증가를 묶는 관세·이민 정책, 그리고 다른 업종은 대부분 흘려 넘기는 금리 변동에 주택만 홀로 취약하게 남겨 둔 연방준비제도(연준)다. 데이비드 켈리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건설 인력과 자재를 끌어가며 주택 건설 원가를 올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켈리가 가장 무게를 둔 대목은 인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인구는 해마다 평균 240만 명씩 늘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 증가가 150만 명, 순이민이 90만 명이었다. 자연 증가는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2025년 52만 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그는 추정했다. 이민은 더 크게 꺾였다. 켈리는 불법 이민이 사실상 멈췄고 추방이 줄어든 합법 순이민의 효과를 거의 상쇄하고 있다고 봤다. 보도에 따르면 인구조사국 집계에서 순국제이주는 2025년 7월까지 1년 동안 130만 명으로 1년 전 270만 명에서 줄었고, 같은 추세라면 2026년 7월까지 약 32만1,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계됐다.

그래서 켈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 인구가 해마다 80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가구원 수 약 2.5명으로 나누면 해마다 필요한 새 주택은 32만 호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그 수가 해마다 약 100만 호였다. 그는 이민 정책 집행이 대부분 행정부 권한이고 의회와 행정부가 이민 개혁법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다며,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 궤도가 최소 2년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질로우가 7월 15일 발표한 분석에서 2024년 미국 주택 부족분은 474만 호였다. 다른 가족과 합쳐 사는 가구 817만 곳과 임대·매매로 나온 빈집 343만 호를 비교해 낸 수치다. 켈리는 이와 달리 경제 전반이 "여전히 순 공급 과잉 상태"라고 봤다.

기후

보이시, 지열로 저렴주택 300가구 난방

미국 보이시 시가 운영하는 지열 난방망을 러스크 주택지구의 저렴주택 300가구 이상으로 넓힌다. 마이크론이 부족 재원 250만 달러를 냈고 착공은 2027년 봄이다.



1 보이시 시는 10월 27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러스크 주택지구에 250만 달러를 내 저렴주택 300가구 이상에 지열 난방을 들이는 계획이 진전됐다고 밝혔다.

2 보이시는 시내 건물 100곳을 데우는 미국 최대 직접이용 지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가구 저렴주택 연결은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3 착공은 2027년 봄, 입주는 2028년 목표이고 시는 주민 공과금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가 시가 운영하는 지열 난방망을 300가구 이상의 새 저렴주택으로 넓힌다. 보이시 시는 10월 27일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러스크 주택지구에 250만 달러의 부족 재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개발사 J. 피셔가 시의 주택토지신탁 프로그램과 함께 짓는다. 시는 이 사업을 미국 도시가 지열로 다가구 저렴주택을 난방하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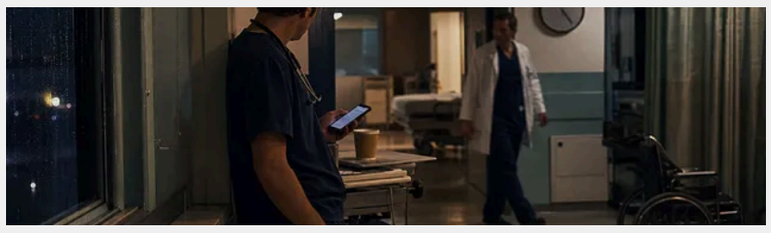
보이시는 이미 미국 최대 직접이용 지열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 망은 시내 건물 100곳에 난방과 온수를 대고 있다. 메탈이 확인한 시의 지열 걷기 안내 자료에 따르면 시 지열 사업은 1983년 건물 15곳으로 시작했고, 보이시 산기슭의 우물 3곳에서 약 800피트(약 244m) 깊이의 화씨 177도(섭씨 약 81도) 물을 끌어올린다. 건물을 데운 물은 다시 땅속 대수층으로 주입되는 순환 구조다. 시는 지열 덕분에 해마다 탄소 배출 수천 톤을 줄이며, 이는 휘발유 차 2,000대 이상을 도로에서 없애는 효과와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가구 주택은 이 망에 붙기 어려웠다. 시는 지난 2월 규제와 요금 부과 문제 때문에 다가구 주택 개발이 지열망에 접근하기 힘들었고, 소외 지역 주민에게 닿으려면 시스템 전체의 확장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필랜스로피가 지원한 타당성 조사로 이 문제를 풀었고, 시는 민관 협력으로 확장을 시험하기로 했다. 같은 달 보이시는 전 세계 600개 이상 도시가 겨룬 블룸버그 메이어스 챌린지에서 100만 달러를 받았다. 시는 이 상금으로 저렴주택 난방과 함께 지열수를 냉방에 쓰는 방안도 탐색한다.

비즈니스

베라헬스, 2,850만달러 시리즈 A 유치

임상 AI 검색 엔진 베라헬스가 2,850만달러 시리즈 A를 유치했다. 직원 12명으로 190개국 임상의 80만 명을 모았고, 답보다 근거의 강도를 먼저 보여 주는 설계가 동료 추천을 타고 퍼졌다.



1 베라헬스는 10월 27일 스레시홀드벤처스가 주도한 2,850만달러 시리즈 A를 유치해 누적 투자액이 3,200만달러가 됐다.

2 1년 전 수천 명이던 이용자는 190개국 임상의 80만 명 이상으로 늘었고, 대부분 동료 추천으로 들어왔으며 직원은 12명이다.

3 베라는 논문 6,000만 건 이상을 평가해 근거의 강도를 색으로 표시하며, 면허 임상의에게 무료이고 수익은 병원 맞춤판에서 낸다.

의사들이 쓰는 임상 AI 검색 엔진 베라헬스가 10월 27일 2,85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는 스레시홀드벤처스가 주도했고 맨티스VC와 SV엔젤이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자 와이컴비네이터와 그래디언트도 다시 돈을 넣었다. 회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누적 투자액은 3,200만달러다. 1년 전 수천 명이던 이용자는 190개국 80만 명이 넘는 임상의로 늘었고, 직원은 12명뿐이다.

성장 경로가 눈에 띈다. 베라헬스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동료의 추천으로 플랫폼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의사 약 4명 중 1명, 프랑스 의사 약 7명 중 1명이 베라를 쓴다. 앱 분석업체 집계를 인용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베라는 6월부터 매달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를 합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려받힌 임상 앱이었고, 9월 한 달 다운로드는 오픈에비던스와 독시미티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하루 질문 수도 수천 건에서 수십만 건으로 늘었다.

사회학의 눈으로 보면 이 확산은 광고가 아니라 신뢰의 연결망을 타고 일어났다. 타이브 벤나니 공동창업자는 한 인터뷰에서 임상의를 가장 까다로운 이용자라고 표현했